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8, No. 3 pp. 117~122 (2008)

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 지식 및 실천정도 분석

이춘선 · 이선미†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 The Analysis of the Oral Health Awareness, Knowledge and Actual Oral Health Care of Middle Schoolers in Some Regions

**Chun-Sun Lee and Sun-Mi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Suwon-Si, Gyeonggi-do 440-714,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how to provide better and more oral health education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boost school oral health projec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30 middle schoolers. After their oral health awareness, knowledge and oral health care were investigat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1. Concerning concern for oral health, 56.7 percent were oral health conscious, and as many as 43.2 percent were little or never concerned about it. 2. As to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36.7 percent found their own oral health status to be good, and 63.3 percent had a periodontal disease or felt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ir oral health. Regarding self-assessed abnormal oral symptoms, 25.8 percent considered themselves to have an abnormal symptom related to temporomandibular joint, and approximately 30 percent though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ir gums. 3. As for toothbrushing habits, the number of the girls who brushed their teeth after lun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ar larger than that of the boys who di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boys and girls in toothbrushing method and in which part of the oral cavity they brushed. 4. In regard to oral health knowledge, the girls(a mean of 7.05) significantly excelled the boys(6.36). Those who were more oral health conscious got significantly better scores in oral health knowledge. 5. In terms of dental-clinic visit experiences, the students who had ever visited a dental clinic took in less sugar and got a more frequent regular dental checkup(2.62, 2.50) than the others who hadn't(2.32, 1.74).

**Key words**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knowledge, Middle schoolers

##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1]. 특히 구강건강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구강건강수준은 지난 30여년간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온 것과 달리, 2000년까지 약화일로를 걸어오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건선진국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구강건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치아우식증에 대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1인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수가 1972년의 0.6개에서 2003년 3.3개로 5.5배나 증가하였고, 2006년 2.2개로 낮아졌지만, 이는 OECD선진국의 1.6개에 비해 여전히 높다.

최근 청량음료와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는 치아우식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구강관리에 대한 게으름과 무지로 인한 치료의 연기는 치주질환을 점점 더 악화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3].

청소년기에 있어서 올바르고 꾸준한 구강관리 여부는 성년기와 노년기 구강건강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에의 의존도가 큰 아동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본인의 구강상태를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임상적 문제가 부각된 특정집단에 집중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의 구강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정보체계나 교육프로그램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4]. 따라서 청소년기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치의학계에서는 학교계속구강관리사업을 통해 우

†Corresponding author
Tel: 031-249-6505
Fax: 031-249-6500
E-mail: lsm712002@dongnam.ac.kr

리나라 구강건강관리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은 학동들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소환하여 개개인에 대한 구강병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발생된 구강병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연차적으로 구강보건진료 수요를 최소로 줄이고 구강건강 수준을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5]. 학교구강보건은 학생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학교구강보건사업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실 사업평가[6-8]와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5,9]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중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 지식 및 실천정도를 조사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1개시에서 중학생들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일부 보건소의 구강보건담당 치과위생사의 도움으로 관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3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20부를 제외한 43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연구도구

Yoo *et al*[10]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후 2007년 9월 일부 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2007년 10월 한달간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게 한 후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과거병력 1문항, 현재구강상태에 관한 질문 2문항, 현재 구강상태 인지정도 및 현재 본인이 느끼는 구강증상 및 증후 6문항, 잇솔질습관 관련 4문항,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관련 10문항, 구강건강실천정도에 관해서는 올바른 잇솔질, 당분섭취제한, 불소이용, 주기적 검진 등을 포함시켰으며,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실천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긍정에 5점, 매우 부정에 1점을 부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지식 Cronbach's $\alpha$=.8896 이었고, 실천정도 Cronbach's $\alpha$=.8543이었다.

### 3. 자료분석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 (SPSS 12.0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퍼센트로 요약하여 기술하였고, 잇솔질 습관에 대한 성별 차이의 유의성 여부는 $X^2$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의 차이 및 구강건강실천 정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430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로는 남학생 191명(44.4%), 여학생 239명(55.6%)으로 여학생이 약간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치과방문 경험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의 치과방문경험을 확인한 결과 '있다' 49.5%, '없다' 50.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이 있다' 52.3%, '아주 관심이 많다'가 4.4%를 나타낸 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43.2%나 되었다.

### 2. 현재구강상태

연구대상자들이 자각하고 있는 구강상태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 Item | Classification | Number (%) |
|---|---|---|
| Sex | Male | 191(44.4) |
| | Female | 239(55.6) |
| Dental visit experience within the past 1year | Yes | 213(49.5) |
| | No | 217(50.5) |
| Concerned of oral health | Very interested | 19(4.4) |
| | Interested | 225(52.4) |
| | Little interested | 155(36.0) |
| | Not interested | 31(7.2) |
| Total | | 430(100.0) |

**Table 2.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 Item | Classification | Number (%) |
|---|---|---|
|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 healthy | 158(36.7) |
| | unhealthy | 153(35.6) |
| | caries | 113(26.3) |
| | periodontal disease | 6(1.4) |
| Oral symptoms | Pain in teeth by toothbrushing | 41(9.5) |
| | Gum hurt and bleeding | 88(20.5) |
| | Joint noise | 90(20.9) |
| | Sharp pain at time of chewing and lockjaw | 21(4.9) |
| | Unpleasant mouth smell | 71(16.5) |

현재 인지하고 있는 구강상태 정도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36.7%로 나타났고, '무언가 이상이 있다' 35.6%, '충치가 있다' 26.3%, '잇몸병이 있다' 1.4%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에 나타나는 증상 및 증후의 자기평가 정도는 턱관절과 관련된 것으로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20.9%와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안 벌어지는경우' 4.9%로 나타났고, 잇몸질환과 관련된 것으로는 '잇몸에서피가 잘 나는 경우' 20.5%, '잇솔질시 이가 시린 경우' 9.5%로 나타났다.

### 3. 성별에 따른 잇솔질 습관 차이 분석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잇솔질 습관 차이 분석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점심식사 후 잇솔질 습관를 보면, 하는 경우에 있어 여학생 45.2%, 남학생 13.6%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안하는 이유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잇솔용품을 가지고 다니기 싫어서' 61.4%, '친구들이 하지 않아' 12.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8.7%, '시간 부족'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 '잇솔용품을 가지고 다니기 싫어서' 55.7%, '기타' 20.6%, '시설부족' 11.5%, '시간부족' 6.1%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잇솔질 방법으로는 옆과 위아래 함께 닦는 경우가 남녀학생 각각 54.5%,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전하면서 닦는 경우 남녀학생 각각 17.8%, 23.0%, 일정하지 않음이 각각 15.2%, 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다.

잇솔질 부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치아와 혀를 닦는 경우' 47.6%, '치아, 혀, 잇몸 모두를 닦는 경우' 19.4%, '치아만 닦는 경우' 18.8%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치아와 혀를 닦는 경우' 61.1%, '치아, 혀, 잇몸 모두를 닦는 경우' 20.1%, '치아만 닦는 경우' 10.0% 순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차이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있어 지식정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남학생 6.36점, 여학생 7.05점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과방문 경험에 있어 있는 경우가 7.02점으로 없는 경우 6.48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있어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경우' 7.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5.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관심 정도에 따라 구강건강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정도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정도에 있어, 남녀 모두 올바른 잇솔질 습관 실천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 3.65점, 여 3.57점) 남학생의 경우는 주기적 검진에 대한 실천정도(2.02점)가 낮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불소이용에 관한 실천정도(1.95점)가 낮음을 알 수 있었으나 집단

**Table 3. Toothbrushing habit by sex**

| Item | Classification | Male | Female | $X^2$(p) |
|---|---|---|---|---|
| Toothbrushing habit after lunch | Yes | 26(13.6) | 108(45.2) | 93.428(.000*) |
| | No | 165(86.4) | 131(54.8) | |
| Reason of not brushing (N=315) | Inadequate facilities | 10(5.4) | 15(11.5) | 98.636(.000*) |
| | It's onerous to carry a toothbrush or toothpaste | 113(61.4) | 73(55.7) | |
| | I have no time to do that | 14(7.6) | 8(6.1) | |
| | I don't feel the need for that | 16(8.7) | 5(3.8) | |
| | My friends don't do that | 23(12.5) | 3(2.3) | |
| | The others | 8(4.3) | 27(20.6) | |
| Brushing method | Horizontal | 9(4.7) | 9(3.8) | 5.923(.205) |
| | Upper & lower | 15(7.9) | 14(5.9) | |
| | Up, lower, horizontal | 104(54.5) | 110(46.0) | |
| | Circle | 34(17.8) | 55(23.0) | |
| | Freely | 29(15.2) | 51(21.3) | |
| Brushing scope | Tooth | 36(18.8) | 24(10.0) | 12.201(.016*) |
| | Tooth, gum | 17(8.9) | 14(5.9) | |
| | Tooth, tongue | 91(47.6) | 146(61.1) | |
| | Tooth, tongue, gum | 37(19.4) | 48(20.1) | |
| | Freely | 10(5.2) | 7(2.9) | |

*p < .05

**Table 4. Knowledge of or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 Item | Classification | N | Knowledge of oral health | | |
|---|---|---|---|---|---|
| | | | M±SD | F or t | P |
| Sex | Male | 191 | 6.36±2.55 | -3.262 | .001* |
| | Female | 239 | 7.05±1.83 | | |
| Dental visit experience within the past lyear | Yes | 213 | 7.02±1.99 | 2.547 | .011* |
| | No | 217 | 6.48±2.37 | | |
| Concerned of oral health | Very interested[a] | 19 | 7.42±2.29 | 6.279 | .000* a,b>d |
| | Interested[b] | 225 | 7.07±1.94 | | |
| | Little interested[c] | 155 | 6.42±2.33 | | |
| | Not interested[d] | 31 | 5.61±2.74 | | |

*p < .05

**Table 5. Practice of the oral hygiene by general characteristics**

| Item | Classification | correct tooth -brushing | limit of sugar intake | use of fluoride solution | Routine check up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Sex | Male | 3.65 ± .80 | 2.57 ± .94 | 2.10 ± .99 | 2.02 ± 1.06 |
| | Female | 3.57 ± .82 | 2.50 ± .87 | 1.95 ± .92 | 2.20 ± 1.10 |
| | t(p) | 1.010(.313) | .779(.437) | 1.615(.107) | -1.720(.086) |
| Dental visit experience within the past lyear | Yes | 3.57 ± .78 | 2.62 ± .80 | 1.93 ± .88 | 2.50 ± 1.11 |
| | No | 3.64 ± .85 | 2.32 ± .99 | 2.10 ± .97 | 1.74 ± .91 |
| | t(p) | -.919(.359) | -2.074(.039*) | -1.867(.063) | 7.686(.000*) |
| Concerned of oral health | Very interested[a] | 4.00 ± .98 | 2.58 ± .76 | 2.05 ± .91 | 2.26 ± 1.14 |
| | Interested[b] | 3.67 ± .80 | 2.58 ± .89 | 2.01 ± .92 | 2.10 ± 1.00 |
| | Little interested[c] | 3.50 ± .76 | 2.45 ± .87 | 1.99 ± .95 | 2.08 ± 1.11 |
| | Not interested[d] | 3.42 ± .92 | 2.55 ± 1.20 | 2.13 ± 1.20 | 2.35 ± 1.42 |
| | F(p) | 3.290(.021*)a>d | .654(.581) | .181(.909) | .701(.552) |

*p <.05

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치과방문경험에 있어서는 당분섭취제한과 주기적검진 실천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분섭취제한에 있어 경험이 있는 경우 2.62점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 2.32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주기적 검진에 있어서도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가 2.50점으로,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 1.74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구강건강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올바른 잇솔질 실천정도에 있어서는 사후분석 결과 '아주 관심이 많은 경우' 4.00점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3.42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당분섭취제한, 불소이용, 주기적검진 실천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고 찰

임상경험의 축적 결과 학교계속구강관리사업이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으나 학교계속구강관리에는 진료에 비해 정보교육의 상대적 비중이 작으며, 교육내용이 불충분하여 이를 개선할 대안이 필요하다[1]. 따라서 학교계속구강관리사업의 기본틀을 활용하면서 청소년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인식, 지식 및 실천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거나 조금 관심이 있는 경우가 56.7%인 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43.2%나 되었다. 이는 Kim과 Nam [11]의 연구결과 조금 관심이 있다 59.9%, 아주관심이 많다 11.4%로 나타난 것 보다는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지역에 있어서 좀 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현재 인지하고 있는 구강상태 정도는 건강하다가 36.7%, 무언가 이상이 있거나 충치 및 잇몸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3.3%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과 Nam[11]의 연구에서 자가판단 구강보건상태가 14.1%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해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강에 나타나는 증상 및 증후의 자기평가 정도는 턱관절 관련 25.8%, 잇몸질환 관련이 30%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Kim과 Nam[11]의 연구에서 잇몸질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잇솔질 습관과 관련된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하는 경우에 있어 여학생은 45.2%인 반면 남학생은 13.6%로 통계

적으로 여학생이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녀간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잇솔질 습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에서는 청소년의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은 남학생 13.0%, 여학생 34.5%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Shin과 Han[12]의 연구에서는 26%의 실천율을 보였으며,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Yoo *et al*[10]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점심식사 후 남학생 12.9%, 여학생 22.1%만이 잇솔질을 한다는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여학생에 있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교에서 점심식후 잇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잇솔용품을 가지고 다니기 싫어서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높았는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도 '귀찮아서'(62.23%), '친구들이 하지 않아서'(16.58%), '시간이 없어서'(12.03%), '시설부족'(6.05%)등이 나열되어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Shin과 Han[12]의 연구에서는 '잇솔,치약 등을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가 남학생 50.9%, 여학생 26.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점심식사 후 잇솔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구강보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학생들의 구강건강행위 특히 식후 잇솔질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하며, 점심식사 후 학생전체가 집단 잇솔질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구강보건지식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 수준정도로 파악되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측정도구에 차이는 있으나 Yoo *et al*[13]의 연구결과에서 치주질환 개념과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부정교합의 원인과 각 질환에 대한 예방법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조사된 점과 비교해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지식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의 지식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 대상 구강보건교육에 있어 학습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함께 교육내용에 있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아우식증은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잘못된 잇솔질, 잦은 간식습관 및 정제된 음식들의 선호 등의 이유로 학령기에 더욱 많이 발생된다[14].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실천정도의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정도에 있어, 남녀 모두 올바른 잇솔질 습관 실천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 3.65점, 여 3.57점), 주기적 검진과 불소이용에 관한 실천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Yoo *et al*[13]의 연구에서도 치아우식증 예방법으로 잇솔질에 대한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방법 즉 정기적 검사와 식이조절에 대한 것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구강건강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Jin과 Kim[15]의 연구에서 개인의 구강건강수준은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위를 변화시켜야만 향상되고,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만 변화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같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구강건강을 실천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결과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이란 개개인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실천될 수 있게 하는 활동이며, 이는 단순한 지식습득과정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의 정립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의 전달과 함께 기초적인 관리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실천습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대상에 있어 일부지역 특히 1개 학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중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비교 가능한 여러개 지역 및 전 학년대상의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설문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중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중학교 재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식 지식 및 실천정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있어 관심이 있는 경우가 56.7%인 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43.2%나 되었다.
2. 현재 인지하고 있는 구강상태 정도는 '건강하다' 가 36.7%, '무언가 이상이 있거나 충치 및 잇몸병이 있다' 응답한 경우가 63.3%로 나타났으며, 구강에 나타나는 증상 및 증후의 자기평가 정도는 턱관절 관련 25.8%, 잇몸질환 관련이 30%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3. 잇솔질 습관과 관련하여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하는 경우에 있어 여학생(45.2%)이 남학생(13.6%)에 비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잇솔질 방법과 잇솔질하는 부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구강보건지식에 있어서는 여학생(7.05점)이 남학생(6.36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치과방문경험에 있어서 당분섭취제한 및 주기적 검진의 실천정도는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2.62점, 2.50점)가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2.32점, 1.7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7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참고문헌

1. Rhee KC, Paik HY, Paik DI: The consumer information improvement for teens'oral healt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2): 63-76, 2005.
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Oral health reasearch, 2007.
3. Lee SO: Self-Perception, Knowledge and Behavior of Clients Received Oral Health Services in a University Hospital Dental Clinic. Master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2005.
4. Paik DI, Kim YS, Jin BH, Shin MM, Heo S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ntal health educational materi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5. Shin SC, Cho EH, Seo HS: School-based comprehensive oral health care program and expending proposal in Korea. J Korea Acad Dent Health 24(2): 185 -203, 2000.
6. Park JH, Jeong SH, Song KB: The 4th year appraisal for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oral health program in Daegu,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1): 71-81, 2008.
7. Hong JW, Lee SW, Park DY, Ma DS: Evaluation of School - based Oral Health Program in Kangnung city. J Korea Acad Dent Health 24(4): 411-420, 2000.
8. Jun SH, Jeong SH, Park JH, Lee HK, Song KB: Effectiveness evaluation of school-based oral health program in Daegu, Korea. J Korea Acad Dent Health 30(4): 421-430, 2006.
9. Kang SH, Kim MS, Lee SM, Bae KH, Oh MY, Kim JB: Effectiveness evaluation of an incremental oral health program by school dental clinic. J Korea Acad Dent Health 30(3): 231-242, 2006.
10. Yoo JS, Park MS, Kim JH: A study of oral health fac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8(1): 49-59, 2007.
11. Kim KW, Nam CH: A study of students' knowledge level of dental health care.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3(2): 295-317, 2000.
12. Shin MS, Han JH: A survey of Oral health state, Oral health awareness and dental treatment perception for middle schoolers in Hwaseong.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8(2): 81-87, 2008.
13. Yoo JS, Kim JH, Han SJ, Sim SH, Kim YS: A descriptive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 behavi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9(1): 85-97, 2008.
14. Won JY, Sin SC, Seo HS, Lyu H: A study on the incremental dental cares of giving the first consideration to prevention in dental clinic. J Korea Acad Dent Health 27(3): 329-345, 2003.
15. Jin BH, Kim YS: Utiliz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al materials at health centers in Korea. J Korea Acad Dent Health 26(3): 397-403, 2002.

(Received June 16, 2008; Accepted September 2, 2008)